

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전자칠판 + 대용량 노트북 + AP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http://eymall.com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최저가 쇼핑을

2016년 11월 30일(수) 제 272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연재·신약초에 빠지다

산에서 자라나는 식물에는 건강이 함께 하고 있다. 전라남도 생약농업협동조합 김형중 조합장이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준비한 신약초의 이야기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9면



경남 특성화고 우수 학생들, 글로벌 문화체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농협중앙회 경남지부 지원으로 전국영농학생 진진대의 수상자 10명, 전국기능대회 및 상업대회 수상자 5명 등 특성화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28일 6박7일간 뉴질랜드에서 글로벌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14면



국민교육 반석 되교동 동면초등학교

좌측 복위 35도 동경 127도가 가리키는 곳은 지구촌 대한민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총의로 789호 동면초등학교를 가리킨다. '국민교육의 반석이 되는 초등학교'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동면초등학교가 꿈꾸는 세상을 들여다보자.

16면

한국 초·중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2~4위

초4 수학 3위·과학 2위...중2 수학 2위·과학 4위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수학·과학 과목 성취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는 49개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약 27만명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연구 2015'(TIMSS 2015)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 맥락변인과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국제 비교 연구에는 49개국의 초등학교생 약 31만 명, 39개국의 중학교생 약 27만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49개 초등학교 4학년생 4699명, 151개 중학교 2학년생 5309명이 2015년 12월 평가에 참여했다.

이번 연구 결과(TIMSS 2015)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4학년생의 수학 성취도는 3위, 과학 성취도는 2위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과학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높았고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매우 낮았다. 성취수준은 수월수준, 우수수준, 보통수준, 기초수준 등 4단계로 나뉜다.

초등학교 4학년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1%, 과학 29%이었다.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수학과 과학 모두 0%였다.

중학교 2학년 '수월 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3%, 과학 19%이며, 기초수준에 미달한 학생 비율은 각각 1%, 3%였다.

수학·과학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수학 성취도는 평균점수 608점으로 참여국 중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점수 589점으로 참여국 중 2위였다.

초4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는 교사의 수학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는 '수학 교육과정(44%)',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향상(42%)'이 국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밖의 활동은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교사의 과학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는 '과학 내용(46%)', '과학 교수법(46%)', '과학 교육과정(54%)'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 국제 평균보다 높았으며 '과학 정보 기술의 통합(30%)'은 국제 평균과 동일했다.

중학교 2학년 수학·과학 성취도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 성취도는 평균점수 606점으로 참여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과학 성취도는 평균점수 556점으로 참여국 중 4위였다.

수학·과학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참여국 중 최저 수준이다. 중2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3%이고 과학 19%, 기초수준미달 학생 비율은 수학 1%, 과학 3%였다.

중학교 2학년 상위 5% 학생의 성취도는 참여국 중 높았다. 우리나라 중2 상위 5%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738점으로 2위, 하위 5%의 성취도는 455점으로 2위였다.

중2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상위 수준이었다. 수학 내용영역별 성취도는 '수' 601점, '가' 612점, '자료와 가능성' 600점으로 각각 2위, '대수' 612점으로 3위였다.

수학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알기' 607점, '적용하기' 606점, '추론하기' 608점으로 각각 2위였다.

과학 내용영역별 성취도는 '생물' 554점으로 4위, '화학' 550점으로 7위, '물리' 564점으로 3위, '지구과학' 554점으로 6위였다. 과학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알기' 555점으로 6위, '적용하기' 552점으로 4위, '추론하기' 560점으로 3위였다.

국기별 성취도에서는 아시아 국가, 특히 싱가포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싱가포르는 초등 4학년과 중2 수학·과학 모두에서 성취도 1위에 올랐다. 초등 4학년 수학에서는 4년 전 3위였던 홍콩이 한국을 제치고 2위에 올랐으며 한국에 이어 대만, 일본, 북아일랜드 등의 순이었다.

초등 4학년 과학에서는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일본, 러시아연방, 홍콩 등의 순으로 성취도가 높았다.

중등 2학년 수학에서는 싱가포르, 한국, 대만, 홍콩, 일본이, 과학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한국, 슬로베니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 4학년 하위 5% 학생의 성취도는 참여국 중 최상위였다. 초등 4학년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 역시 최상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수학 내용영역별 성취도는 '수' 610점으로 3위, '도형과 측정' 및 '자료 표현'은 각각 610점, 607점으로 2위였다. 수학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알기' 627점으로 2위, '적용하기' 595점으로 3위, '추론하기' 619점으로 1위였다. 과학 내용영역별 성취도는 '생물과학' 581점으로 2위, '물리과학' 597점으로 2위, '지구과학' 591점으로 1위였다. 과학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알기' 582점으로 1위, '적용하기' 594점으로 2위, '추론하기'는 594점으로 2위였다.

초등 4학년 학생의 수학·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등은 낮았으나 자신감은 지난 2011년 연구결과에 비해 높아졌다. 수학에 대한 태도 역시 참여국 중 낮은 편이었다. 다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지난 2011 연구결과(TIMSS 2011)에 비해 평균권도점수가 0.1점 올랐다.

초4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는 교사의 수학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는 '수학 교육과정(44%)',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향상(42%)'이 국제 평균보다 높았다. 그 밖의 활동은 국제 평균보다 낮았다.

교사의 과학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는 '과학 내용(46%)', '과학 교수법(46%)', '과학 교육과정(54%)'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에 대해 국제 평균보다 높았으며 '과학 정보 기술의 통합(30%)'은 국제 평균과 동일했다.

중학교 2학년 수학·과학 성취도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 성취도는 평균점수 606점으로 참여국 중 2위를 기록했다. 과학 성취도는 평균점수 556점으로 참여국 중 4위였다.

수학·과학 기초수준 미달 학생 비율은 참여국 중 최저 수준이다. 중2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3%이고 과학 19%, 기초수준미달 학생 비율은 수학 1%, 과학 3%였다.

중학교 2학년 상위 5% 학생의 성취도는 참여국 중 높았다. 우리나라 중2 상위 5%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738점으로 2위, 하위 5%의 성취도는 455점으로 2위였다.

중2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상위 수준이었다. 수학 내용영역별 성취도는 '수' 601점, '가' 612점, '자료와 가능성' 600점으로 각각 2위, '대수' 612점으로 3위였다.

수학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알기' 607점, '적용하기' 606점, '추론하기' 608점으로 각각 2위였다.

과학 내용영역별 성취도는 '생물' 554점으로 4위, '화학' 550점으로 7위, '물리' 564점으로 3위, '지구과학' 554점으로 6위였다. 과학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알기' 555점으로 6위, '적용하기' 552점으로 4위, '추론하기' 560점으로 3위였다.

'능력중심' 채용 앞장선 공공기관 10곳 선정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민간 기업 확산 지원

'예급보통공사의 인사지원서에는 특이 기재 항목도 없었고, 여러 항목이 나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느껴요.'(예급보통공사 신입직원 인터뷰)

'NCS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고 일학습병행제를 함께 운영했다니 신입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향상됐습니다.'(한국남부발전 인사담당자 인터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국가직무능력

표준(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10개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 29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던 스펙의 범위를 줄이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130개, 2016년 추가로 100개 공공기관에 NCS를 활용한 채용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7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NCS를 확충·고시하면서 제

용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실제로 과거에 여학생적, 사회봉사 등 기본 스펙이라고 답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아지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채용직무에 대한 필요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경진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기관들은

채용방식 변화를 통해 신규인사자원을 감소, 높은 만족도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기관의 특성에 맞는 NCS 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능력중심채용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등 보다 발전된 NCS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민간기업 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도입을 원하는 공공·민간 기관에게 전문 컨설팅과 인사담당자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있다.

온 세상에 퍼지는 행복 바이러스

구월중학교 '구월중 효자봉사단 발대식' 개최



구월중학교(교장 서병대)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10시 도서관에서 '구월중 효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흥취용 단장을 비롯한 사랑의 네트워크 관계자와 서병대 구월중학교 교장 등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병대 교장은 '구월중 효 봉사단

은 효본 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일련의 봉사활동이 인성교육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봉사단 단원은 구월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 만 아니라 봉사에 뜻이 있는 학부모들도 가입할 수 있는 봉

사단으로서 구월중 1, 2학년생 56명과 학부모 56명 등 총 112명으로 구성됐다는 봉사단이다. 발대식을 마치고 지난 11월 19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경인실버요양원'에서 봉사의 첫발을 내딛는 시간을 가졌다.

다육식물 심기를 돕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손·발에 맞춰가며 집중하고 협심해 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약간의 다과도 준비해 어른들께 대접했다.

두 번째 봉사활동으로 11월 26일 사랑의 네트워크에서 주관해 인천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연탄배달 봉사에 구월중 효자 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연탄을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활동을 했다.

연탄을 배달받은 한 할아버지는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춥고 해서 난방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연탄을 배달해 주니 너무 고맙고 기쁘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 같아 안심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구월중 효 봉사단'은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자치만 보탬이 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행복 바이러스가 번지길 기대해 본다.

인용성 기자 as@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같은 내일이 날이 다르듯, 꿈을 바르려 하면 사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용이 강을 건너고, 사자가 산을 넘어, 인간이 세상을 초월할 때, 상상이 현실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바르려 하면,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바른 인재가 만들어내는 상상이 바로

바른 인재가 키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 - 인문관 (사상·인문학과 교직원)